

증산사상의 연구 동향과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

김 방 룡

충남대학교 · 교수

- I. 머리말
- II. 증산사상 연구의 현황
- III. 증산사상 연구의 특징
- IV.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사상은 대순사상, 대순종학, 대순교학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대순사상’으로 일컫고자 한다.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의 계시를 받은 조정산과 그로부터 유훈을 받은 박우당으로 종통이 계승되어 박우당에 의하여 창교된 종교이다. 증산을 구천상제로 보아 신앙 대상으로 모시고 있으며, 『전경』을 기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순진리회 교단의 활동과 『전경』을 토대로 하여, 강증산, 조정산, 박우당의 종통계승을 인정하고 이들의 삶과 사상 등의 총체를 우리는 대순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구한말 이 땅에 강세하였던 증산상제의 사상은 증산사상, 대순

사상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증산사상’으로 일컫고자 한다. 증산 사상은 협의로 볼 때는 증산 강일순의 생애와 사상을 말한다. 그리고 광의로 볼 때는 증산 사후 생겨난 모든 증산계 종단의 사상을 통틀어 증산사상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의미로서 증산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도전 박우당에 의하여 창교되어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해왔다. 특히 중립대학인 대진대학을 만들고, 또 대학 내에 대순종학과를 개설하여 대순사상에 대한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대순사상학술원과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등 종단의 연구소를 만들어 대순사상의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대순사상은 학계는 물론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점차 인지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1860년 동학의 창교 이후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신종교들이 출현하였지만 150여년의 기간 동안 그 중 많은 종단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라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장한 종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교학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원불교가 그렇고 또 통일교가 그렇다. 대순진리회 또한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신종교가 한국사회에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종교교리를 객관화하고 보편화하여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학문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문적인 담론의 장에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또한 종교학과 철학은 물론 많은 학문분야로 연구 영역이 퍼져나갈 때 사회적인 공신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증산을 숭배하여 만들어진 교단은 증산 사후 지금까지 50여개에 이르고 지금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단으로 분파되어져 성장해오고 있는 것이 증산교단의 특징 중의 하나이긴 하지

만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큰 종단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일제 시대 보천교와 무극도가 대표적이었다면 현재는 대순진리회와 증산도가 대표적인 종단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수많은 종단의 공통분모가 ‘증산상제에 대한 신앙’이라 할 때, 대순사상 또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증산사상의 범주 속에서 논해져야 한다. 또 증산교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신종교 혹은 자생종교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신종교는 다시 종교학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영역은 대순사상→증산사상→신종교사상→종교학의 범주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져 나아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의 교단 밖에서 ‘증산사상과 대순사상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검토해봄으로서, 앞으로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증산사상 연구의 현황

증산사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동안 수 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종교와 증산교사 및 대순사상에 대한 단행본 또한 적지 않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러한 논문의 1차 자료로서 증산의 생애와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각 교단별로 발행한 주요경전 및 증산교단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신종교실태보고서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은 학회지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논문을 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증산도와 같은 경우 자체 연구소의 논문이 있겠지만 학술적 담론의 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였다. 학술논

문은 우선 대분류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1990년대 이전과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신종교 및 증산사상 개관, 증산사상, 대순사상, 기타 증산 교단 연구와 비교 및 응용의 네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다만 대순진리회와 대진대학의 교단 내부에서 논의된 논문은 발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물론 대순사상이 일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문은 포함시켰다.

이중 학술논문의 반 이상이 증산사상연구회에서 발행한 『증산사상 연구』에 실린 논문이다. 배용덕 선생에 의하여 창간되어 22집(2000)까지 발간되었는데, 국내의 우수한 인문학자들의 글이 총 망라되어 있다. 배용덕 선생에 의하여 증산사상 연구의 초석이 놓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배용덕 선생의 사후 홍범초 선생이 맡아서 다시 발간하였으나 홍범초 선생 또한 작고하신 이후 간행이 중단되고 있다.

■ 증산교 주요경전

- 『현무경』
- 김낙원, 『용화전경』, 1972.
- 김병철, 『중화경』, 증산천사법문연구회, 1955.
- 김병철, 『화은당실기』, 대한증산선불교회본부, 1955.
- 김삼일, 『증산대도전경』, 청도대향원교무부, 1970.
- 김홍규, 『삼사전서(三師傳書)』,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제12판, 1989).
- 박모산, 『순천도법문전경』, 장원문화사, 1979.
- 보화교본부, 『보화교연혁』, 보화교출판부, 1968.
- 서병구, 『동도삼덕교회연혁』, 1976.
- 서상범, 『생화정경』, 삼덕교교화부, 1954.
- 이상호, 『대순전경』10판, 증산교본부, 1987.
- 이상호, 『대순전경』11판, 증산교본부, 1991.
- 이상호, 『대순전경』12판, 증산교본부, 2001.

- 이상호, 『대순전경』2판, 동화교회도장, 1933.
- 이상호, 『대순전경』3판, 대법사편집국, 1947.
- 이상호, 『대순전경』4판, 대법사편집국, 1949.
- 이상호, 『대순전경』5판, 증산대도회본부, 1960.
- 이상호, 『대순전경』6판, 증산교회본부, 1965.
- 이상호, 『대순전경』7판, 증산교회본부, 1975.
- 이상호, 『대순전경』8판, 증산교회본부, 1979.
- 이상호, 『대순전경』9판, 증산교본부, 1982.
- 이상호, 『대순전경』초판, 동화교회도장, 1929.
-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상생사, 1926.
- 이영호, 『보천교연혁사』상·하, 보천교편집국, 1935.
- 이원장, 『애국거불』, 미륵불교총본부, 1976.
- 이정립, 『교부인신정기』, 증산교본부, 1977.
- 이종성, 『천지개벽경』, 대도연수원 부설 용봉출판, 1992.
- 정봉양 외 3인, 『보천교지』, 1964.
-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도전』, 대원출판사, 1992.
- 태극교교회부, 『선도진경』, 청문사, 1965.
-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전서』, 1987.
- 허환, 『삼덕교사』, 1973.

■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 村山智順編,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1930.
- 장병길 외,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공보부, 1970.
- 장병길 외, 『한국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공보부, 1985.
- 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총람』, 1992.
- 류병덕 외, 『한·중·일 삼국 신종교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2.
-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 윤승용 외, 『한국신종교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종교연구회, 1996.
- 김홍철 외, 『한국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 학위논문

-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5.
- 윤기봉, 「불교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5.
-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8.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 박사논문, 2001.
- 고남식, 「해원주체 강증산 전승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3.
- 김정태, 「증산 강일순의 체육사상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993.
-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김석한,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9.
-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6.
- 류원근, 「후천개벽사상에 나타난 개혁관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0.
- 신일교, 「후천개벽사상의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1.
- 안후상, 「보천교운동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2.
- 윤재근, 「증산사상의 교육원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1.
- 이용찬, 「현무경의 符와 후천개벽사상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2.
- 이재호, 「증산 강일순의 해원상생사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9.
- 이주희, 「유교의 천관과 대순의 천관 비교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9.

■ 1990년대 이전 학술논문

▶ 신종교 및 증산사상 개관

- 강돈구, 「민족종교와 민중종교」(한국종교문화연구소구소, 『한국종교연구회 회보』1집, 1989)
- 강돈구, 「신종교연구서설」(『종교학연구』6집, 1987)
- 게르너트 프루너, 「세계 신종교의 동향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김재완, 「속 증산사상의 세계사적 우위성-그의 우주관과 철학적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김재완, 「증산사상의 세계사적 우위성-우주통일론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김홍철 외, 「한국 근세종교의 민중사상 연구」(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

국종교』14합집, 1989)

- 김홍철, 「개화기·일제시의 민중종교 사상에 관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사상의 제문제』3권, 1985)
- 김홍철, 「일제하 증산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연구(서설)」(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0·11합집, 1987)
- 노길명, 「증산의 민중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류병덕, 「계룡산하 종교집단체와 모악산하 종교집단체 비교연구」(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68)
- 류병덕, 「민족적 민중종교의 향방」(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박정진, 「기철학적 입장에서 본 증산교(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박정진, 「기철학적 입장에서 본 증산교(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박정진, 「기철학적 입장에서 본 증산교(Ⅲ)」(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9)
- 박정진, 「기철학적 입장에서 본 증산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배중호, 「한국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배중호, 「한국사상의 원류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윤이흠, 「종교집단내의 갈등해소대책-증산교 분열 유형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6권, 1990)
- 이항녕, 「동양의 討氣譯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현희, 「민족정통사의 원류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이현희, 「증산사상의 민족사적 위치-그의 민중의식적 측면」(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임영창, 「21세기의 문화위상-후천시대의 문화개벽」(증산사상연구회, 『증산

사상연구』14집, 1988)

- 정연선, 「한국사상의 원류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정주영, 「한민족의 정통사상과 증산사상(上)」(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최동희, 「한국사상의 원류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황정용, 「증산사상의 민족사적 시도—一和觀적 화합이상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황정용, 「증산사상의 인류문화사적 조명-붕괴위기의 현대문화 구제철학, 이것이 동방의 등불」(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황정용, 「태평양시대의 인류화합세력에 관한 증산철학적 고찰-한국은 후천문화의 중심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증산사상

- 김광제, 「후천종교로서의 증산교-그 통일윤리적 특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김병룡, 「선천종교와 증산교-그 출현환경에 대한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김병룡, 「증산이념의 특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김선양, 「증산의 교회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김열규, 「원한(怨恨)의식과 원영(怨靈)신앙」(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김지견, 「천지공사와 증산의 신계 위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김탁, 「증산의 조화정부와 인류평등문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김형효, 「원시반본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증산사상의 한 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김형효, 「증산사상의 창조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김호훈, 「증산사상과 항구평화」(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김홍철, 「순천도 범문과」(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0집, 1985)
- 노길명,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노길명, 「증산의 민족주체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노길명, 「증산의 평등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문정배, 「증산사상의 관왕운도와 미래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문정배, 「천지공사의 미의식적 이해」(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박범진, 「천지공사와 미래의 세계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박용옥, 「증산의 남녀평등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박용옥, 「증산의 생민구활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배용덕, 「증산사상과 민족정통성-천지공사를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배용덕, 「삼계관련사상의 철학적 고찰-천지공사의 필요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배용덕, 「증산교 개창의 역사적 필연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배용덕, 「천지공사를 통해서 본 후천문화의 기층구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배용덕, 「천지공사에 마련한討상한 鑿제의 甦生역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배용덕, 「천지공사와 민족정통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배용덕, 「천지공사의 요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배용덕, 「천지공사의 이념과 통일신단」(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배용덕, 「천지인 삼계 통일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배용덕, 「토천지공사학과 그 역사적 필연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배용덕, 「통일신단 지상구현과 진법출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

14집, 1988)

- 변찬린, 「증산의 해원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송지영, 「민족주체사상의 광맥」(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신순갑, 「개국이념과 증산의 인존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신철호, 「증산선생의 토착해대순탁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신현창, 「증산교단의 진로와 그 방향성 모색」(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안중건, 「원시본분사상의 역리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원광호, 「한국은 후천문화의 종주국-모사재천 성사재인의 당위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상비, 「강증산과 천지공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이상비, 「상제탄강의 인류사적 의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이원섭, 「증산대도의 무차원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이원섭, 「증산의 우주관과 21세기(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이원섭, 「증산의 우주관과 21세기(중)」(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이윤석, 「속 천지공사의 과학적 조명」(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윤석, 「천지공사의 과학적 조명」(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이용규, 「증산사상의 해원상생과 향산적 이타정신의 법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용규, 「천지공사 사상의 현대적 조명」(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이일청, 「대순전경과 증산사상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이일청, 「모사재천 성사재인론-증산의 천인합일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일청, 「인존사상의 철학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이일청, 「증산사상과 새 윤리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이일청, 「증산사상의 구현과 전환기의 증산중단」(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이일청, 「증산사상의 신관 개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이일청, 「증산의 세계관(우주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이정립, 「해원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이창성, 「증산사상의 양성평등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이항녕, 「증산의 우주통일사상-우주정부론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이항녕, 「증산의 우주평화론-후천개벽과 심계선경화」(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이항녕, 「통일신단의 지상구현-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이현택, 「증산교」(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8집, 1983)
- 이희태, 「한국의 우주보편세계통일사상가 강증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임영창, 「대순전경에 나타난 삼계공사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임영창, 「대순전경의 사적의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임영창, 「속 증산사상의 신관교-삼계공사와 삼계통일을 주제로 하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임영창, 「정음정양의 남녀평등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임영창, 「증산사상과 신관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임영창, 「천지공사와 통일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임평모, 「천하대약론-증산사상을 기조로 한 인류구원의 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장병길, 「강증산의 종교사상구조에 관한 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장병길, 「증산교의 변역신앙에 관한 논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장병길, 「증산사상에 나타난 조성의 섭리관-선인들의 역리를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장병길, 「증산의 종교윤리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장병길, 「천지공사의 본질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정춘화, 「증산사상과 인간성회복」(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조운천, 「상제강계의 인류사적 필연성 신천지를 알리는 새소식, 그 개벽적 실천은 무엇인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조장천, 「옥황상제 동토탄강과 지상선경」(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최동희, 「민족주체사상의 광맥」(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최동희, 「증산사상과 세계의 미래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최동희, 「증산사상의 의미-사상구성의 철학적 분석」(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최동희, 「증산의 세계통일이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최동희, 「증산의 인간관-현대적인 이해를 위한 시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4집, 1978)
- 최동희, 「해원의 윤리적 의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홍범초, 「증산 교의로 본 교윤」(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홍범초, 「증산교의 충효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홍범초, 「증산대성께서 말씀하신 선천과 후천은 어떠한 세계인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집, 1976)
- 홍범초, 「증산대성께서는 신도들을 어떻게 훈도하셨는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홍범초, 「증산대성의 생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황정용, 「동서합덕문명과 증산사상-그 의의와 책임에 대한 소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황정용, 「세계사의 轉機에 작용하는 천지공사의 도수-해원상생의 역리에 작용하는 철학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기타 증산 교단 연구와 비교 및 응용

- 김병룡, 「한국사상과 음악예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김선양, 「남녀평등사상의 인류문화사적 의의-증산의 해원상생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김열규, 「전통문화맥락 속의 원한-증산교적 원영관념의 배경」(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김영두, 「증산사상으로 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김영두, 「증산사상의 정치사상적 의의와 그 사적 전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김영두, 「증산사상의 현대적 의의-Leviathan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김홍철, 「수운·증산·소태산의 비교연구」(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6집, 1980)
- 김홍철, 「수운·증산·소태산의 유훈선 삼교관」(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4·5합집, 1980)
- 노길명, 「사회적 배경과 그들 간의 관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노길명, 「일제하 증산교운동-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서설적 연구」(송산박길진박사고회기념 논총,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1984)
- 문정배, 「천지공사와 문예부흥-그 기반의식의 탐색」(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박수원, 「증산교의 과정으로 본 88서울올림픽」(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박용옥, 「증산사상과 동학사상에 나타난 남녀평등관 비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배용덕, 「동서양의 양성관에 관한 철학적 고찰-증산 이념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배용덕,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초월한 인류대화합축제의 의미-24회 올림픽대회 서울개최는 천지공사의 도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배종호, 「홍익인간사상과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철학을 소유한다」(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변찬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후천개벽」(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변찬린, 「仙교-풍류도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변찬린, 「성서적 입장에서 본 시천주와 태을주」(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송호수, 「민족정통사상 고찰-동학과 증산사상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송호수, 「종교의 원시반본-세계사상의 원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신일교, 「증산사상과 원불교사상-통종교 기본 성격을 중심으로 한 유비적 고찰」(신통교학회, 『정신개벽』1집, 1982)
- 신철균, 「한국민족사상으로 본 남북통일-증산사상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여동찬, 「미륵사상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여동찬, 「미륵하생경사상과 증산선생의 5만년 선경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윤태립, 「여성해원과 남녀평등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윤태립, 「한민족문화의 심층의식과 증산교의의 관련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이강오, 「보천교-한국 신흥종교자료편 제1부」(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논문집』8집, 1966)
- 이근식, 「전환기에 있어서 증산사상의 역할과 과제-인류공존을 위한 진솔한 삶의 향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이용남, 「증산사상에서 본 한국사원덕의 생성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이일청, 「증산의 세계일가공사-그 실증, 88서울올림픽」(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이일청, 「협동이념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이종익, 「해원상생사상의 사회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이항녕, 「단군사상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6집, 1980)
- 이항녕,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집, 1975)
- 이현택, 「원불교 은사상과 증산교 보은상생사상의 비교고찰」(원불교사상연구회, 『원불교사상』7집, 1983)
- 이희태, 「21세기 아세아태평양시대의 올림픽철학의 전망-99서울올림픽 학술대회발표논문에 대하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이희태, 「환·단군신선도의 부활과 증산사상의 사회구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이희태, 「환·단군신선도의 부활과 증산사상의 사회구현(중)」(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이희태, 「환·단군신선도의 부활과 증산사상의 사회구현(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4집, 1988)
- 임영창, 「종교사상으로 본 증산교의의 특질」(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7집, 1981)
- 임평모, 「인류평화와 해원-자연조화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5집, 1979)
- 전진, 「증산사상과 에른스트 블로크의 메타종교 이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정연선, 「증산사상의 세계 정치사상적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정연선, 「증산의 정치교의와 실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조영래, 「증산사상의 태극진리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조운천, 「해원상생론으로 본 동서이테올로기의 지양」(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9집, 1983)
- 조학송, 「선경문화세계의 새 생활법 연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 최동희, 「증산사상의 이해와 정신분석적인 방법」(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2집, 1986)

상연구』6집, 1980)

- 최동희, 「한국사상과 증산이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3집, 1977)
- 한승조, 「국민윤리와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1집, 1985)
- 홍범초, 「보천교 초기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0집, 1985)
- 황정용, 「88년 서울올림픽은 후천개벽의 제2의 3·1운동-89년 서울 세계한민족체육대회는 세계인류화합공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5집, 1989)
- 황정용, 「정음정양을 중심으로 하는 남녀평등사상의 증산철학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3집, 1987)

■ 1990년대 학술논문

▶ 신종교 및 증산사상 개관

- 김상일, 「증산사상의 우주사적 의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김선양, 「증산사상의 현대정신사적 의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김홍철, 「해방후 50년의 한국신종교 연구사」(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15집, 1998)
- 류병덕, 「한국 민중종교를 통해 본 화의 철학」(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6집, 1991)
- 류병덕,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현황」(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사연구』5집, 1997)
- 윤승용, 「신종교와 신종교학」(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집, 1999)
- 이영석, 「자본주의와 민중종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임영창, 「증산신학의 특수성과 그 전망」(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황선명, 「민중종교사상 연구의 몇 가지 맹점」(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6집, 1990)

▶ 증산사상

- 김선양, 「증산의 평화사상론-러셀의 평화사상과 대비하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김영두, 「상제화현의 인류사적 의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김재완, 「세계 사회사상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증산사상의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김탁,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8집, 1993)
- 김탁, 「증산 강일순이 인용한 한시 연구」(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19집, 1994)
- 김호훈, 「LA 흑인폭동 유감-이종죽간 해원상생」(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김홍철, 「증산사상과 풍류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김홍철, 「증산사상에 나타난 三界仙境具現」(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노길명,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증산종교운동」(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20집, 1995)
- 박용욱, 「세계여성운동사상에서 본 증산의 남녀평등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박정진, 「氣를 통해본 증산교의 문명사적 의미」(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박정진, 「증산사상과 仙敎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박정진, 「신의 존재양태와 증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박정진, 「신의 화현과 우주시대개막」(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배영기, 「증산의 상생관에 관한 일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배용덕, 「증산교의에서 본 동서종교통일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배용덕, 「천지인 三界 更生論 소고-증산상체계서 남기신 경쟁주를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배용덕, 「상제인신화현의 우주사적 의의-천지개조는 창조의 권능이 있어야 가능하다」(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배용덕, 「한사상과 증산교」(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이원섭, 「강증산의 생명사상(상)-제4세계의 전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이원섭, 「神仙府東國醫統考」(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이원섭, 「신정공사와 과학적 仙境—氣와 仙의 패러다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이원섭, 「증산의 우주관과 21세기(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이응규, 「증산사상과 유희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이일청, 「미래세계와 증산의 醫統사상-教政一致時代」(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이일청, 「증산사상과 동학」(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이일청, 「한국은 후천문화의 근원지-증산사상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이일청, 「상제의 인간화현관-대순사상에 나타난 증산상제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이항녕, 「우주시대와 천지공사-영구적 평화이념으로서의 상생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이희태, 「인류문화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증산사상의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이희태, 「증산 천지공사의 인류무교문화사적 의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이희태, 「증산사상과 기독교사상(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이희태, 「증산사상과 기독교사상(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이희태, 「상제인화강세와 천지공사-후천개벽을 중심으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이희태, 「한의 증산대도」(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임영창, 「신세계를 맞는 세계의 지도이념-증산사상의 재발견·재인식」(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임영창, 「증산교의에서 본 윤리재건-天下皆病과 그 치료방법」(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임영창, 「증산사상의 특이성-불교사상과 대비하여」(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임영창, 「증산사상의 상제론적 위격과 권능」(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정연선, 「증산의 인존사상과 민주주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진성규, 「증산교의 해원상생에 관한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최동희, 「세계 사상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증산사상의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최동희, 「증산사상에서의 上帝와 동학에서의 하나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최동희, 「한국사상사의 맥락에서 고찰한 증산사상의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최민홍, 「증산의 항구적 평화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9집, 1993)
- 홍범초, 「증산의 천지공사에 나타난 미륵사상」(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1994)
- 홍범초,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3집, 1993)
- 황정용, 「신한국창출과 증산사상의 역할」(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0집, 1994)
- 황정용, 「한민족사관의 정통맥락에서 고찰한 증산사상의 위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8집, 1992)
- 황정용, 「천지공사와 삼계통일론-상제인화강세의 의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대순사상**

-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9권, 1999)
-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4권, 1997)
- 유승중,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5권, 1998)
-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7권, 1998)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8권, 1999)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2권, 1996)

▶ **기타 증산 교단 연구와 비교 및 응용**

- 고건호, 「신종교 의례의 전개과정」(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한국종교연구회회보』7집, 1996)
- 김상일, 「증산교의 해원과 기독교의 화해」(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김재완, 「증산교의 수부관」(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6집, 1990)
- 김홍철, 「한국신종교의 미륵신앙」(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6집, 1994)
- 박선영, 「한국종교들의 인간관과 인격교육의 가치요소-천도교와 대순진리회 및 원불교 등 근대를 전후한 자생종교를 중심으로」(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4권, 1997)
- 안후상,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6집, 1996)
-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 운동-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남민』4,5집, 서해문집, 1992, 1995)
- 이경원, 「한국 근대종교에 나타난 천의 인격성 고찰-다산, 수운, 증산을 중심으로」(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7집, 1997)
- 이원섭, 「강증산의 생명사상(上)-해원상생의 전개」(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

상연구』17집, 1991)

- 이희태, 「증산미륵불교인의 주체적 신앙운동」(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6집, 1996)
- 정주영, 「한민족의 정통사상과 증산사상(하)」(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17집, 1991)
- 최준식, 「왕중양과 강증산의 삼교합일」(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1989)

■ 2000년대 학술논문

▶ 신종교 및 증산사상 개관

- 강돈구, 「근대 한국 신종교의 민족개념-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6집, 2004)
- 김상일, 「아시아적 가치론과 증산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김홍철, 「동아시아에 있어서 상생정신에 관하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2집, 2005)
- 박규태,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상」(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 문화』7집, 2001)
-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후천론의 특징」(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4집, 2001)
-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의 사회사상 연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8집, 2003)
- 이경원, 「한국 신종교에 있어서 철학적 주제 고찰」(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19집, 2006)
- 이경원, 「한국 신종교의 시대적 전개와 사상적 특징」(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24집, 2005)
- 이재현, 「1970년대 이후 한국신종교의 현황과 전망」(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3집, 2000)
- 황정용, 「새 천년 시대에 있어서의 인류세계윤리에 대한 증산철학적 고찰」(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증산사상

-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50집, 2008)
- 고남식, 「강증산 전승의 해원과 문학치료」(한국문학치료학회, 『문학치료연구』1집, 2003)
- 고남식, 「증산 강세전승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한국문학치료학회, 『문학치료연구』2집, 2004)
- 구사회, 「강증산의 종교운동과 민족의식」(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23집, 2007)
- 김방룡, 「증산교와 진묵대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4집, 2001)
- 김방룡, 「증산종단의 미래-원불교와의 비교적 관점에서」(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0집, 2004)
- 김탁, 「증산교 상생사상의 특성과 전개과정」(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3집, 2005)
- 김탁, 「한국 신종교의 조상승배-증산교를 중심으로」(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20집, 2000)
- 김홍철, 「증산사상에 나타난 신교적 요소」(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노길명, 「근대의 충격에 대한 증산의 인식과 대응」(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안병로, 「강증산의 정혼사상」(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26집, 2002)
- 안병로, 「증산의 구도과정에서 살펴본 신선사상」(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2집, 2005)
- 양우석, 「증산의 개혁적 역사철학」(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24집, 2002)
- 양은용, 「증산교의 성립과 증산천사공사기」(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30집, 2006)
- 오문환, 「강증산의 해원상생의 의의와 한계」(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4집, 2001)
- 윤기봉, 「증산교의 한국종교사적 의미-민중신앙의 흐름을 중심으로」(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4집, 2003)
- 윤기봉, 「한국인의 정서를 통해 본 해원」(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

구』14권, 2002)

- 윤승용, 「증산교의 한국종교사적 의미-민중신앙의 흐름을 중심으로」(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4집, 2003)
- 이경원, 「강증산의 천지공사의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4집, 2006)
- 이양우, 「증산사상의 사회학적 배경과 우주론적 종교성」(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이청원, 「천지공사와 한밝사상」(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홍범초, 「증산사상에 나타난 한 민족의 원시문화」(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홍범초, 「증산사상에서 易을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5집, 2001)

▶ 대순사상

-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대순진리회 『진경』과 증산관련 경전의 경향」(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6집, 2007)
-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17권, 2003)
- 김순자,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12권, 2001)
-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서양 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15권, 2002)
- 윤재근,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23집, 2001)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천지공사를 중심으로」(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17권, 2003)
-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24권, 2007)
- 윤재근, 「한국 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대동철학회, 『대동철학』23권, 2003)
- 이경원, 「대순사상의 삼교관왕론 연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7집,

2007)

- 이경원,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8집, 2000)
- 이경원, 「대순사상의 신관 연구」(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34집, 2004)
- 이경원, 「대순사상의 심체론 연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6집, 2002)
- 이경원,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인존론을 중심으로」(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2집, 2005)
-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근대성과 변혁사상」(동학학회, 『동학학보』, 2005)
-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3집, 2005)
-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 후천론의 특질 : 대순신앙을 중심으로」(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4집, 2001)
- 이경원, 「한국민족종교의 특성과 대순사상」(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8집, 2008)

▶ 기타 증산 교단 연구와 비교 및 응용

- 강영한, 「증산도의 천지공사 사상과 그 의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2)
- 국승규, 「예수와 강증산의 이적 행위의 비교 및 기독교 세계화에 관한 연구」(원광대 생체공학연구소, 『원광생체공학학회지』6집, 2003)
- 김영호, 「깨달음의 보편성과 특수성-불교와 증산의 경우」(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10집, 2002)
-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한국종교사학회, 『한국종교사연구』8집, 2001)
- 김탁, 「한국종교사에서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김탁, 「한국종교사에서 증산교와 민간신앙의 만남」(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2집, 2000)
- 김항제, 「신종교의 해원사상-통일교와 증산교를 중심으로」(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7집, 2002)
- 민영현, 「선(仙)과 증산사상의 특징 및 그 도교성에 대하여-한국인의 생명

사상을 중심으로」(한국도교문화학회, 『도교문화연구』26집, 2007)

- 박광수, 「근현대 한국 민중종교 통과의례에 나타난 사상체계 비교연구-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50집, 2008)
- 박광수, 「한국 신종교(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 연구」(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26집, 2002)
- 박영규, 「증산사상과 한국적 기독교 영성신학」(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안병로, 「증산도의 청수사상」(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7집, 2002)
-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2002)
- 안후상, 「차월곡 출생에 관한 소고」(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2000)
- 이희태, 「단군사상과 증산사상-홍익인간과 해원상생의 대도철학」(증산사상연구회,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 조용태, 「강증산과 예수그리스도의 여성이해-파니카의 견해를 근간으로」(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6집, 2002)
- 황선명, 「무극도에 있어서 노동의 개념에 대하여-태극교의 희망과 좌절」(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3집, 2000)
- 황선명, 「잃어버린 코문- 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2000)

III. 증산사상 연구의 특징

1. 주요경전과 실태조사보고서 및 학위논문에 대하여

모든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작업은 텍스트비평이다.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증산교의 모든 교단들이 일차적으로 문

제 삼아야 할 것은 ‘증산이 행했던 공사(公事)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22종의 증산교 주요경전은 증산과 각 종단의 교주의 언행록과 연혁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증산의 친저인 『현무경』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언행록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따라서 증산의 언행록을 모아 놓은 다른 경전들이 주로 증산사상의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 등장하고 있다.

증산 종단의 경전의 편찬과정과 변이과정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의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김탁의 박사논문인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호가 간행한 『대순전경』 6판(1965)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고 기타 자료들 보완적인 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김탁의 석사논문인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이일청의 「대순전경과 증산사상 연구」, 홍범초의 「증산종단 경전 성립사 연구」, 임영창의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 양은용의 「증산교 성립과 증산천사공사기」, 고남식의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등이 경전과 관련된 주요 논문들이다.

홍범초는 위의 글에서 이상호의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 1판에서 6판까지를 비교하고 있으며, 이어 이종성의 『천지개벽경』의 편찬과정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고남식은 『증산천사공사기』를 원천으로 하여 강증산 관련 각 경전의 변이는 탈락과 새로운 내용의 강화를 통해 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¹⁾ 또 양은용은 위의 논문에서 이상호의 생애와 최초의 증산 언행록인 『증산천사공사기』가 지니는 의의가 크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는 그동안 8차례의 것이 나와 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村山智順編, 『朝鮮の類似宗教』가 나온 것이 효시가 되어 해방이후 문화공보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장병

1)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집, 2008, p.269.

길·윤승용·류병덕·김홍철·이강오·윤이흠 등이 책임자가 되어 직접 현지 교단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중 특히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과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의 김홍철·류병덕·양은용등에 의하여 발간된 『한국신흥종교실태보고서』는 대표적인 업적이다. 『한국신흥종교실태보고서』에서는 신흥종교들을 14개의 계통으로 분류하였는데, ① 단군계 ② 수운계 ③ 일부계 ④ 증산계 ⑤ 봉남계 ⑥ 각세계 ⑦ 불교계 ⑧ 유교계 ⑨ 선도계 ⑩ 그리스도교계 ⑪ 무교계 ⑫ 계통불명 ⑬ 외래계 ⑭ 신흥종교관련 단체가 그것이다. 이 중 증산계의 종단은 모두 51개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仙道敎(太乙敎) | 2. 普天敎(신과) |
| 3. 普天敎(구과) | 4. 甌山敎本部(大法社) |
| 5. 彌勒佛敎法相宗 | 6. 太極道 |
| 7. 양산도 | 8. 甌山大道一佈場 |
| 9. 三德敎 | 10. 普化敎 |
| 11. 大韓佛敎龍華宗(龍華敎) | 12. 泰仁彌勒佛敎 |
| 13. 檀君聖主敎 | 14. 東道法宗金剛道 |
| 15. 無極大道 | 16. 甌山聖地銅谷藥房(약방과) |
| 17. 甌山法宗敎 | 18. 母岳敎(仁正道德院本部) |
| 19. 大韓佛敎彌勒宗 | 20. 戊乙敎 |
| 21. 帝和東大道 | 22. 大巡眞理會 |
| 23. 仙道(安乃成派) | 24. 甌山眞法會 |
| 25. 甌山道 | 26. 靑道大享園 |
| 27. 永世宗主道 | 28. 彌勒佛流法寺(廣濟院) |
| 29. 靑羽一新會 | 30. 龍華彌勒佛敎硏究會 |
| 31. 順天道本部 | 32. 順天道朴日門派 |
| 33. 順天道金康洙派 | 34. 法門敎理順天道本部 |
| 35. 順天道蔡住奉派 | 36. 順天道朴鳳完派 |
| 37. 順天道李敎賢派 | 38. 順天道王順喆派 |
| 39. 順天道宋月學派(天道靈符三友會) | 40. 正道敎(행방불명) |
| 41. 光明奉天彌勒眞法會(행방불명) | 42. 彌勒敎(행방불명) |

- | | |
|-------------------|---------------------|
| 43. 風流道園龍華道場 (멸실) | 44. 人天道 (멸실) |
| 45. 龍華世尊彌勒佛甌山大道會 | 46. 甌山教客望里姜石幻派 (멸실) |
| 47. 人道教 (멸실) | 48. 順天道朱大榮派 (멸실) |
| 49. 順天道金甲眞派 (멸실) | 50. 順天道宋壽千派 (멸실) |
| 51. 順天道魏龍潭派 (멸실) | |

이러한 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는 1997년 발표된 이후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신종교들이 법인화를 하였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교단과 교리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기관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새로운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너무 방대한 작업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위논문은 5편의 박사논문과 11편의 석사논문이 있다. 시기별로는 박사논문의 경우 김탁, 윤기봉과 이경원의 논문이 1990년대에 나머지 두 명의 것은 2000년에 들어서서 등장하였다. 석사논문의 경우 최초의 논문은 1981년 신일교의 「후천개벽사상연구」이며, 나머지는 모두 1990년대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진대학교에서 학위논문이 배출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외시켰다. 주로 후천개벽에 대한 주제가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중 김탁의 박사논문인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은 증산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물로서 학계에 인정되고 있다. 또 윤기봉, 윤재근의 논문은 대순사상으로 학위를 받은 논문이며, 안후상의 「보천교운동연구」는 석사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보천교의 대표적인 연구물로 인정받고 있다.

2. 학술논문 연구의 시기별 특징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공로자를 뽑으라면 故 배용덕 선생이라 하겠다. 배용덕은 1974년 증산사상연구회를 만들어 작고하

기 3년 전인 1995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증산사상연구』를 발행하여 총 21집을 간행하였다. 이 논문집에는 그의 3권의 저서를 포함하여, 무려 86명의 필진과 총 35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러한 논문의 수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증산사상에 관한 연구물은 『증산사상연구』에 거의 수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2000년에故 홍범초 교수가 이 작업을 이어 22집을 발행하였으나 불행히도 2001년 불우하게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22집 이후 현재까지 발행이 중단되어 오고 있다.

『증산사상연구』를 제외하고 각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의 기관지인 『한국종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책자들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종교문제연구소는故 류병덕 교수에 의하여 1970년에 개소되어, 1971년에는 『한국종교』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원불교학의 최고 권위자인 류병덕 교수는 원불교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종교학, 불교학, 종교학의 세 분야 속에서 원불교학이 정립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종교문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증산사상에 관한 연구물의 효시는 1966년에 발표된 이강오의 「보천교-신흥종교자료 1편」이다. 이강오는 이 연구를 기점으로 수많은 신흥종교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흥종교를 연구하였으며, 그의 작업의 총결산으로 『한국신흥종교총람』을 발간하였다. 이강오 외에 신흥종교의 현장을 가장 많이 방문한 학자로는 김홍철·황선명·이경우·윤승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증산종단의 경우 홍범초·노길명·류병덕·김탁·이희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시기 『증산사상연구』가 아닌 곳에 발표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노길명의 「한국 근대사회변동과 증산종교운동」, 김홍철의 「수운·증산·소태산의 비교연구」, 홍범초의 「보천교 초기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주된 특징은 신흥종교 연구가 종교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종교학회에서의 신종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가 하면 1995년 한국종교사학회가 다시 가동되어 『한국종교사연구』3집부터 발간을 시작하였다. 또 1999년에는 한국신종교학회가 출범함으로써 신종교 연구에 대한 학문적 공간이 확보되었다. 또한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등에도 증산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6편의 논문이 실리고 있는데, 이는 대순사상이 일반학회지에 최초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시기 역시 1995년까지 발간된 『증산사상연구』가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큰 변화는 증산사상연구회가 활동을 멈춤으로 인하여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가 한국신종교학회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이다. 또 증산사상에 대한 전체 연구물에서 대순사상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물이 17편이나 나오게 된다. 이는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교수들의 지속적인 학문적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진 것이며,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종교학회 이외에도 다양한 학회에서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물이 발표되어지는데, 한국철학사연구회 · 한국사상사학회 · 한국문학치료학회 · 한국동서철학회 · 한국종교교육학회 · 한국정치사상학회 · 대동철학회 · 동학학회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종교학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학회의 대부분은 학진 등재내지 등재후보지 학회로서 학계에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와서 신종교 및 증산사상의 연구가 학계의 학문적 담론의 장에 드디어 정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 주요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엄밀한 의미에서 증산사상에 대한 전공자는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김탁·윤기봉·윤재근·이경원·고남식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김탁과 윤재근은 석사와 박사를 모두 증산사상을 전공하고 있다. 이들 중 김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진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대순사상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견하게 한다.

김탁은 1995년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증산사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을 내놓았다. 그는 1992년 『증산교학』이란 단행본을 미래향에서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몇 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며, 「한국종교사에서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 「한국종교사에서 증산교와 민간신앙의 만남」,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 「증산교 상생사상의 특징과 전개과정」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증산교단의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은 물론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국내는 물론 일본의 자료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윤재근은 대순사상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종교교육과 생태환경 등의 응용학문에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남식은 증산사상에 대한 문학치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윤기봉은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경원이다. 이경원은 2000년대 들어 대순사상과 증산사상 나아가 신종교사상에 대한 연구물들을 왕성하게 발표해 오고 있다. 10여 편에 이르는 그의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관, 심체론, 수양론, 인간론, 신체관, 상생이념, 우주론 등 대순사상의 주요한 교리체계를 신종교학회 등 여러 학회를 통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앞서 『증산사상연구』에 수록된 필진이 86명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듯이 이들 필진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교학, 철학, 역사학, 문학, 정치학,

사학, 종교지도자 등 다양하며,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사람만 소개하고자 한다.

장병길은 한국 신종교 연구자의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1970년대 이미 증산사상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강증산의 종교사상구조에 관한 연구」, 「증산교의 변역신앙에 관한 논고」, 「증산사상에 나타난 조성의 섭리관-선인들의 역리를 중심으로」, 「증산의 종교윤리관」, 「천지공사의 본질고」 등 증산사상의 철학적 구조와 특징을 밝혀주었다.

이항녕은 문교부차관과 홍익대 총장 등을 역임하고 민족고유사상에 대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증산의 우주통일사상-우주정부론을 중심으로」과 「증산의 우주평화론-후천개벽과 심계선경화」등을 발표하고 증산사상을 단군사상과 동학사상을 비교한 논문을 제출하였다.

최동희는 고려대 철학과에 재직하였으며, 한국사상의 원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깊이 하였으며, 동학·천도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업적을 발표하였다. 한국사상의 원류와 그 흐름 속에서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증산사상의 핵심교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민족주체사상의 광맥」, 「증산사상과 세계의 미래상」, 「증산사상의 의미-사상구성의 철학적 분석」, 「증산의 세계통일이념」, 「증산의 인간관-현대적인 이해를 위한 시도」, 「해원의 윤리적 의미」등이 있다.

배용덕에 대하여 이항녕은 “민족정기 회복과 신세계건설의 커다란 비원을 품고 증산사상연구회를 조직하여 학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고 학자들은 마치 새로운 광맥이나 찾은 듯 그 재료의 신기함과 그 사상의 심오함에 비로소 놀라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²⁾라고 회상하고 있다. 배용덕은 천지공사, 해원상생, 통일신단, 삼계통일사상 등 증산사상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물을 쏟아내었다.

2) 이항녕, 「증산사상연구 제 22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증산사상연구』22집, 2000, p.7.

김홍철은 원광대에서 신종교를 전공한 신종교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한국신종교의 전 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업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강오와 더불어 신종교 교단의 현장을 가장 많이 방문 조사하여 신종교에 관한 자료를 학계에 많이 소개하였다. 시기별로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민족종교사상사에서 증산사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 증산 교단에 대한 소개, 동학·원불교·증산교의 사상 비교, 증산사상의 핵심교리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업적을 발표해오고 있다.

노길명은 고려대에 재직하면서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사회변동에 따른 종교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증산사상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업적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물로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의 민족주체사상」, 「증산의 평등사상」,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증산종교운동」 등이 있다.

홍범초는 증산교단의 연구에 평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증산종단 연합회의 대표를 맡아서 종교지도자로서 활동하였던 분이다. 그가 저술한 『범증산교사』는 증산교의 모든 종단의 역사와 사상을 총 종합해 놓은 것으로 증산사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75년 「증산대성의 생애」를 『증산사상연구』1집에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물을 발표하여 왔으며, 특히 증산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이정립 선생의 제자로서 『대순전경』의 개정판 발간에도 참여하였으며, 2001년에는 배용덕 선생이 주도하였던 증산사상연구회의 회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2002년 비운에 작고하시기 전까지 증산사상 연구와 증산종단의 연합운동에 헌신하였다.

이일청은 증산사상연구회의 고문으로 1970-80년대에 『증산사상연구』를 통하여 많은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주요논문으로 「대순전경과 증산사상연구」, 「모사재천 성사재인론-증산의 천인합일사상」, 「인존사상의 철학적 고찰」, 「증산사상과 새 윤리관」, 「증산사상의 구현과 전

환기의 증산종단, 「증산사상의 신관 개념」, 「증산의 세계관(우주관)」 등이 있다.

이희태는 독일에서 스포츠철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하였던 용화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행과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고유사상, 역학 등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연구물을 발표해오고 있다. 「환·단군신선도의 부활과 증산사상의 사회구현」, 「한국의 우주보편세계통일사상이 강증산」, 「단군사상과 증산사상-홍익인간과 해원상생의 대도철학」 등의 대표적인 업적이 있다.

4. 주제별 연구에 대한 검토

신종교 및 증산사상을 개관한 연구물로는 김홍철의 「해방 후 50년의 한국신종교 연구사」를 들 수 있다. 이는 1998년 발표된 논문으로 이 시기까지의 신종교연구사를 체계적으로 개관해 놓았다. 이외에도 강둔구의 「신종교연구서설」, 황선명의 「민족종교사상 연구의 몇 가지 쟁점」, 류병덕의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현황」 등이 신종교 전체의 연구 성과를 조망한 논문이다. 이는 모두 1990년대에 쓰여진 논문들이다. 200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는 이경원의 「한국 신종교의 시대적 전개와 사상적 특징」, 「한국 신종교에 있어서 철학적 주제 고찰」과 이제현의 「1970년 이후 한국 신종교의 현황과 과제」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증산사상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 글이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물들은 천지공사, 해원상생, 우주관, 신관, 남녀평등관, 인간관, 윤리사상, 원시반본, 역(易) 등 주로 증산의 핵심사상과 특징을 드러내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증산사상이 전통사상과 고유사상의 회복과 계승의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증산사상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는 논문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개별 교단에 대한 연구로는 이강오, 안후상, 노길명, 황선명 등이 보천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경원이 중심이 되어 대순진리회의 사상을 많이 발표하였다. 또 황선명은 태극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김홍철이 순천도법문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88서울올림픽이 증산상제의 공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는 몇 편의 논문이 나온 것도 한 특징이며, 증산의 이념을 통하여 남북통일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상사적 흐름은 민족고유사상의 흐름을 강조하는 논문과 동학이후 발생한 근대민중종교의 사상의 흐름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교논문으로는 주로 수운, 소태산 등 근대민중종교사상가들과의 비교논문이 많으며, 단군사상, 동학사상, 통일교사상 등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한승조의 경우 국민윤리와 비교한 논문을 기술하기도 하고, 이회태의 경우 환인과 단국 신선도의 부활과 증산사상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선(仙), 유교, 기독교, 불교와 미륵신앙 등과의 비교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응용분야의 논문으로는 남녀평등에 대한 논문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며, 교육학의 분야와 문학치료의 분야에 대한 논문도 눈에 띈다. 또한 의례와 노동, 음악예술, 한시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증산사상에 관한 철학적 종교학적 주요 주제에 관한 담론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증산 교단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과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이미 발표된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증산교의 주요 종단 간의 사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증산사상에 인용되는 많은 자료들은 텍스트에 대한 학문적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되고 있어서 그들의 주장이 일반학계에서 인증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자료에 대한 텍스트비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주요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많은 논문들의 경우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증산의 사상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거나 모든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응용분야의 일부 논문은 각 분야의 주요 학문적 담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증산의 사상을 구체적 논증 없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응용분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증산사상의 용어가 특수하여 현대인의 일상적인 용어와는 많은 차이가 드러내고 있다. 일반인들이 거리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수한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변화시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고 보여 진다.

IV.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증산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1995년까지 배용덕의 증산사상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증산사상에 대한 학문적 중심은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증산사상연구회와 대순사상학술원 모두 증산 교단의 범위를 넘어 한국종교학계, 철학계, 교육학계 등과 원활히 소통하고 인정받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증산교는 차치하고 한국의 신종

교학이 아직 학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상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종교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의 수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몇몇 종립대학을 제외하고 대학에서 신종교를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한 곳도 서너 군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순사상의 정립과 사회적·학제적 소통의 길은 험난하다고 보여 진다. 철저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한 보다 긴 안목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원불교의 경우 이미 1970년에 종교문제 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1974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개원되었다. 또한 영산선학대학교에 소태산사상연구소, 여성문화연구소, 요가수련원 등이 있으며,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는 실천교학연구원, 선요가연구원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1995년에는 한국원불교학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천도교의 경우 교단 내의 연구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철학, 종교학, 역사학, 문학, 사회학, 민속학, 예술학, 체육학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다. 동학·천도교 관련 논문이 수백 중에 이르고 『동학학회』는 이미 권위 있는 학회지가 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순사상의 현재의 여건은 열악하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배용덕의 증산사상연구회의 성공요인에 대한 모방과 계승이 필요하다. 증산사상연구회가 수많은 연구자를 끌어들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크게 자료 제공, 연구 활동 지원, 연구동기 부여, 정성스런 인맥관리 등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방이 필요하다. 학문이란 기존의 연구업적에 대한 ‘계승과 습득’이 우선 필요하며, 둘째 완전히 숙지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것과의 ‘단절’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자기만의 주체적인 ‘창조’가 있어야 한다. 대순사상을 정초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계승과 습득이다. 『증산사상연구』에는 이미 많은 주제에 대한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단 내 연구자들의 인지와 습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인력 확보이다. 연구는 전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분야에 전문 연구자가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역량이 전제되어야겠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교단 내에서 전문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외부의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효과를 노리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문연구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를 발견하여 세대간의 단절이 없이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순사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단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단 내부의 연구자의 역량을 키우고 교단 외부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내실을 꾀하고 아울러 증산사상 혹은 대순사상을 전문 연구하는 학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기초자료에 대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학문은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순사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종단에서 발간된 1차 자료는 『전경』과 『대순지침』을 비롯한 몇 가지뿐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증산, 정산, 우당과 관련된 어록, 글, 편지, 대화내용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증산은 어렵겠지만 정산, 우당을 직접 뵈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찾아 녹취를 하고, 관련된 자료나 유품 등이 있으면 이를 모아야 한다. 세분 이외에도 종단의 지도자나 수행에 모범이 되는 분들의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다섯째, 대순사상의 기본교리에 맞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앙, 수행, 의례, 조직, 교단사 등의 분야를 나누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학계의 학문적 체계에 맞도록 대순사상을 재정리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순사상이 어떠한 학적 체계 내에서 존립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토대로 정체성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순사상→무극도→증산사상→신종교→한국종교→동양종교→세계종교’의 체계를 세울 것인가, 혹은 ‘대순사상→증산사상→신종교→한국종교→세계종교’의 체계를 세울 것인가, 혹은 ‘대순사상→신종교→세계종교’의 체계를 세울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는 대순사상을 신종교, 종교학, 철학 등의 체계 속에서 정립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문적 체계 속에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일곱째, 대순사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대순사상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사상사적 맥을 찾아 뿌리를 뺄고,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대순사상의 뿌리를 한민족의 고유사상에 맥을 대고자 한다면 한민족의 고유사상 전체가 대순사상의 연구영역으로 확대되어 질 수 있다. 또 ‘음양합덕’에 관한 연구를 역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고, ‘신인조화’는 인간론, 신론, 이기론 등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도 이처럼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교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증산과 정산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사회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변화된 교리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새롭게 학문적 분야로 정착하게 되는 응용학의 분야, 예컨대 환경문제, 성차문제, 가상공간의 문제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교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홉째, 세계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우선 『전경』이 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독일어 등 세계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나와야 한다. 또

대순사상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해설서들이 나오고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종교의례, 수행법 등 또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나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도 마련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열제, 눈높이에 맞추고 수준에 맞추어 설명되어진 다양한 교리 해설서가 나와야 한다. 어린 아이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맞는 교리서가 나와야 한다. 또 무식자에서 교학력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맞는 수준별 교리서를 개발해야 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나타난 증산사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본 후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을 피력하여 보았다. 사실 너무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종교에 대해 더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 같다. 종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곤 한다.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거꾸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오묘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라는 4대 종지를 통하여 증산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종지는 증산의 사상을 잘 함축하고 있으며, 학문적 담론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종지에 입각한 대순사상의 학문적 구축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Trend of Researches on Jeungsan's Thought and the Academic Problems of Daesun's Thought

Bang-Ryong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hecked the trend of exiting researches on Jeungsan's thought and investigated the academic problems of Daesun's thought as an basic work to form the deep academic discussions on Daesun's thought.

Grouping into the scriptures of Jeungsangyo, its theses and papers, I synthesized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es. In the case of papers, I divided into three periods, before 1990, 1990s' and after 2000. Grouping into three fields, the periods, the researchers and the themes, I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s of Jeungsan's thought through the main scriptures, theses and papers, and reports of actual state.

In conclusion, I brought up the ten problems about academic questions of Daesun's thought.

Key words : Jeungsangyo, Daesun-Jilihyoe, Gang-Jeungsan, Pak-Hangyeong, Jeungsan's thought, Daesun's thought

◎ 투 고 일 : 2009년 6월 22일

◎ 심 사 기 간 : 2009년 7월 22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8월 8일